

잠룡 시장이 남긴 교훈

교감/문 덕 진



얼 마전 한국을 다녀간 태국의 방콕시장 잠룡에 대한 이야기가 시중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. 수 많은 외국의 국가 원수와 고위급 인사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다녀갔지만 잠룡 사장만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인물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.

그가 한국에서 강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강연장에 모였으며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— 특히 대학생들이 잠룡! 잠룡! 하고 외쳤다니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. 왜 잠룡 시장은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는가? 그는 공직자로서 깨끗하게 거울처럼 자기 모습을 공인들 앞에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봉급의 대부분은 길거리의 불우한 사람을 위해 쓴다고 한다. 그래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친구가 빌려준 조그만한 집마루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는 대재벌의 아들도, 훌륭한 사상가도, 공부를 많이 한 석학도 아니다. 그러기에 그의 훌륭함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. 이러한 잠룡이 있기까지 화려한 삶을 거부하고 묵묵히 남편 뜻을 따라준 부인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인물이다. 왜냐하면 남

자들의 큰 뜻도 아내의 도움없이도 실
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

잠룡 시장은 더 큰 사회적 지위나 명
성에 뜻을 두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은
정녕 아니다. 그가 지속적으로 방콕
시민의 지지를 받고 또 세계각국에서
또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은 그의 행동
이 진실하기 때문이다.

진실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
기본적인 윤리일 것이다. 그런데 왜
우리 사회에서는 허영심, 이기심 등이
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가!

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
회 지도층의 비리는 보통 사람들을 슬
프게 한다.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
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고 더 큰
권력을 갖기를 원하겠지만 그 방법과
행동이 우리의 윤리관을 혼동시키고
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
것이다

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
이다. 공동체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
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. 나보다는 너
를, 너 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
자. 한국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문
구(文句) '내 탓이오' 를 항상 간직하
자. 그러면 이기심은 사라질 것이라고
생각한다.

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
과 판점사들이 술자리를 함께하고, 사
회 지도층 인사들이 깡패들과 연관을
갖고, 어린 학생들의 성폭행, 부녀자의
인신매매,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
등을 보면 과연 이 사회는 어디로 가는
것일까 염려된다. 그러나 우리 사회에
는 훈훈한 미담도 많다. 김밥 장사를
하여 먹을 것 못먹고 하고 싶은 것 못
하고 구두쇠처럼 생활하던 이복순 할
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50억 상당의 땅
을 충남대(大)에 기증했다. 할머니의
아들도 그 뜻에 찬성하였다니 얼마나
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가!

창원에 2백 40억 상당의 근로자 아파
트 1천여 가구를 지어 소년, 소녀 가장
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나선 김성필씨,
그리고 작고한 부친의 주식 배당금 1억
원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하여 맡긴 정
해원 선수등의 이야기들을 들으며, 또
그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
만을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며 살 것
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우리 전체 사회
에의 영향을 깊이 깨달아 남을 위해 나
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미래의 우리
의 자손에게 떳떳하게 아름다운 사회
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
본다. 文苑